

“감사 전 재무제표, 법정기한 내 꼭 제출하세요”

금감원, 회계결산·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당국이 상장사나 자산 1000억 원 이상 비상장사·금융사에 대해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반드시 제출할 것을 강조했다. 자산 1000억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에도 유의해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기말감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제출대상은 △주권상장법인 △자산 1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상장여부·자산규모 불문) 등이다. 상장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비상장법인은 금감원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상장법인은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제출·공시해야 한다.

별도·개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6주 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총일 4주 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6주 전(별도) 혹은 4주 전(연결)에 내야 한다. K-IFRS를 미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이 기한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 이후 상장법인의 위반 회사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비상장법인은 코로나19와 제출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9~2020년 크게 증가했다. 일부 기업들이 외부감사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매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제출 의무 위반 상장법인의 경우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제출해야 하지만 대부분 제출하지 않았다.

자산 1000억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감사는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를 요구받는데 질문은 물론 문서검사·재수행·관찰 등 엄격한 검증절차를 수행하고 그 대상을 ‘운영실태보고서’ 외에 회



26일 금융감독원은 2022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기말감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로 확대해야 한다. 또 부정위험에 대응하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도 있다.

금감원은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왜곡 표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적절한 수준의 전산감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경영진·내부감사인이 내부회계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 이를 적극 공시하고 개선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제재사유에 해당함에도 내부회계에 중요한 취약점이 없다고 보고한 경우 조치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평가 결과를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중점심

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히 주의할 것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6월 △수익 인식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등의 2023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했다.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회계이슈별로 유의사항을 참고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 시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해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회계이슈별로 중점심사 대상 업종도 제시하므로 해당 회사·감사인은 보다 신중하게 결산 및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에 맞는 결산과 충실한 외부감사로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도 강조했다. 또 회사·감사인 모두 감사절차별 감사시간, 인원 수 등의 적절한 투입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질의회신 및 심사·감리 지적 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적용에 도움이 된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 ▶한화 에어로스페이스[012450] 844억 원 규모 차관채권재구조 2차 양산 계약 체결
- ▶삼성중공업[010140] 1683억 원 규모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마감공사 수주
- ▶삼일제약[000520] 서울 서초구 등 5곳 토지 재평가 통해 자산가치 647억 원 증가
- ▶삼성엔지니어링[028050] 7338억 원 규모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공사 수주
- ▶금호전기[001210] 전환가액 1005원에서 976원으로 조정
- ▶에스엠코어[007820] 162억 원 규모 자동차용 신설개조 공급계약 체결
- ▶CJ 바이오사이언스[311690] 면역항암치료제 ‘CJRB-101’ 미국 FDA 임상 신청
- ▶블루베리 NFT[044480] 기업경쟁력 강화 등 위해 ‘블레이드엔터테인먼트’로 상호 변경
- ▶세트랙아이[099320] 92억 원 규모 MRSS 위생제 플랫폼 공급계약 체결
- ▶코운테크[282880] 153억 원 규모 2차 전지 공정 자동화시스템 공급계약 체결

기업 4곳 중 1곳,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 없어

자산규모 작은 기업일수록 ICFR 평가조직 구성 비율 줄어

자산 1000억 원 이상인 국내 기업 4곳 중 1곳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 인원 수도 작년보다 0.3명 줄어든 평균 2.5명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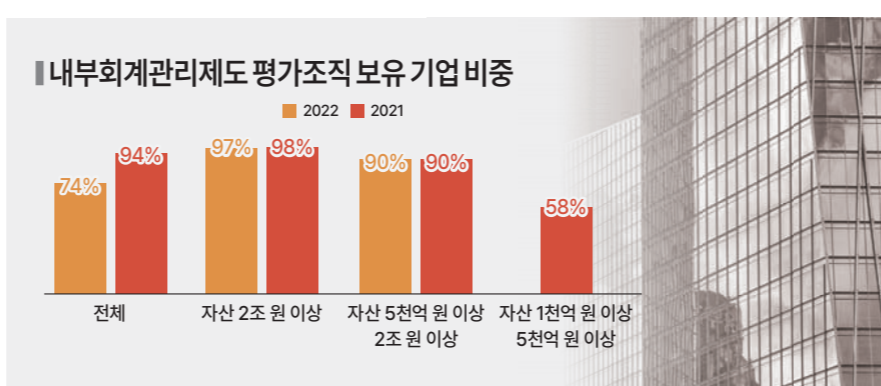
26일 삼정KPMG가 자산 1000억 원 이상 기업 14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22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평가조직 서베이 리포트’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운데 104개사(74%)가 ICFR 평가조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94%) 대비 20%p 감소한 수준이다.

ICFR 평가조직 보유 비중이 낮은 이유로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의 상장사가 조사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게 삼정KPMG의 설명이다. 또한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ICFR 평가조직을 갖춘 비율이 줄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연결 ICFR 조직 구성방안으로는 본사 ICFR 조직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 52%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93%가 본사 ICFR 조직 활용을 고려한 반면 자산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의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조직 구성방안이 미정인 경우가 9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따른 환경 사건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이후 재점검 등 부정위험 관리 현황도 집계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이후 재점검한 기업은 140개사 중 73개사(52%)에 달했고 재점검 프로세스 중 자금통제 영역이 53%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회계 13%·구매 13%·영업 9%·IT 7%·고정자산 관리 2%·인사 2%·생산 2%로 조사됐다.

K-SOX 전문조직 리더인 신장훈 삼정

KPMG 부대표는 “기업에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시 가장 큰 어려움의 요인으로 중속기업의 인적자원과 인프라 환경 문제를 꼽는다”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사 제도가 도입되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확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로 개편

금융위원회가 증권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부서를 과장급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는 “2013년 9월 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해 증권범죄에 대응하고 있지만 자본시장 규모 및 참여자 수가 확대되고 SNS 활용 등으로 증권범죄가 복잡해져 과장급 1개 부서로 효과적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했고 금융위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해당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로 확대 개편된다.

신설되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사건의 분류, 자본시장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 자본시장조사 관련 대외협력 의무를 담당한다. 자본시장조사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허위공시·중요사실누락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증권범죄 대응 관련 기능 보강 및 조사·수사 역량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추진하고 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미네랄 2종
(아연/구리)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추출물

비타민 4종
(A/C/E/베타카로틴)

중장년의 침침하고 흐린 눈엔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눈의 중심부인 황반의 구성 성분 '루테인'과 '지아잔틴'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이 상로 맺히는 부분인 황반은 사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눈의 중심 부분입니다. 황반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색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화로 인해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밀도가 감소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중장년의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로 챙기십시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인 아이시안 멀티케어골드는 식약처 1일 권장섭취량(20mg)을 충족하는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캡슐로 눈 건강과 기초 영양까지 케어

아이시안 멀티케어골드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뿐 아니라 기초 영양 케어를 위해 1일 권장량을 100% 충족시키는 비타민 4종(A, C, E, 베타카로틴)과 미네랄 2종(구리,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리턴업 전속모델
성유리

6개월분 구매 시
정상가대비 41% 할인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282-9988